



화순전남대병원,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회의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필수보건의료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이번 회의에는 민정준 병원장과 강호철 진료처장을 비롯해 최형호 목포시의료원장, 조절균 화순군립요양병원장, 강성휘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 등 총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과 2024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계획 등의 발표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 기관의 사업 소개와 필수보건의료 분야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남권역책임의료기관인 화순전남대병원은 필수보건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와 의료 공공성 향상을 위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 △정신건강증진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노병하기자



광주조달청, 찾아가는 '공공조달길잡이'

광주지방조달청은 29일부터 이틀간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에 참석해 찾아가는 '공공조달길잡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상담 서비스를 통해 미래교육 박람회 참석 수요기관에 '공공조달길잡이'를 소개하고 지역 기업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요청했다. 또 박람회 참여 기업들에게는 조달우수제품, 혁신제품 등의 조달 제도를 설명하고 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등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조달시장 진입과 조달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광주조달청은 컨설팅 전담관 2명을 지정·배치해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광주 서부경찰, 무인점포 절도 예방 홍보 와블러 설치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27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무인점포 15개소를 방문해 청소년 절도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와블러'를 설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사진)

이날 활동은 최근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무인점포 진입대 및 계산대에 시인성이 뛰어난 홍보 와블러를 부착해 절도 등 범죄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명본 서부경찰서장은 "홍보 와블러 부착을 편의점 등 일반 점포 대상으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소년사건 분석 및 맞춤형 대책 시행으로 소년범 감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광주 서구,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개최

광주 서구는 지난 28일 신암근린공원에서 풍암동 마을 BI (Brand Identity) '건강마을'과 연계한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이날 박람회는 고운메디칼, 제로백피트니스, 코끼리휴병원,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 사단법인 실버마을 등 건강 관련 업종 5개 업체가 참여했다. 구인 업체와 구직자 간의 현장 면접과 VR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됐다. 130여명의 구직자가 행사에 참여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채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미 서구 일자리정책지원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들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인 장이 됐다"며 "건강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업체들과의 만남이 구직자들이 새로운 분야의 직업 기회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것 바란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광주지속협-계림1동, 자원순환해설사 양성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광주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회, 광주교육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단과 공동으로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자원순환해설사 양성과정을 진행해 4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사진)

29일 협의회에 따르면, 계림1동은 6월 말 예정인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과 실천의 거점 공간 'RE100 게임 자원순환가게'의 개소를 앞두고 당초 주민 20명을 모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동구 일대 50명이 넘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었다.

최도성 상임회장은 "이번 자원순환해설사 양성과정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지역의 대학과 마을이 협력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협의회는 역량있는 지역자원들을 연결해 교육과 실천이 파급력있게 확산되고,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전남신보, 소상공인 '중간관리자 간담회'

전남신보보증재단(전남신보)은 지난 28일 이강근 이사장을 비롯한 중간관리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위한 중간관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연체율 및 폐업률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 방안 △외부고객 서비스 개선사항 △내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활성화 등 재단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조직 내 젊은 직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선후배 간의 가교역할을 위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당부하고 청정리더십의 함양과 상호존중 및 공감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강조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교통공사, 빅데이터로 기관사 건강관리

광주교통공사가 기관사들의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예방 프로그램을 펼쳤다. (사진)

29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조선간호대 김유정 교수(한국빅데이터진흥원 부원장)를 초빙, 기관사 전원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관리 교육을 순차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그동안 축적된 기관사의 열차 운행 및 근무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발생을 예측하는 휴먼에러 예방 방안이 제시돼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지하공간에서 불규칙한 시간대에 독립적으로 일하는 기관사의 근무 환경상 정신 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에 착안, 빅데이터를 통한 정신 건강 모니터링 및 질병 예측과 대응 실천법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노병하기자

변우석 "선재야, 고마워"... '선업튀' 종영 소감

배우 변우석(사진)이 '선재 업고 튀어' 류선재를 떠나보냈다.

변우석은 29일 바로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전날 종영한 tvN 월화극 '선재 업고 튀어'에서 류선재로 '선재 열풍'을 이끈 종영 소감을 전했다.

최종회에서 류선재(변우석 분)는 15년을 뛰어넘은 타임슬립 끝에 임술(김혜윤 분)에 대한 모든 기억을 되찾고 눈물로 재회하며 안방극장에 긴 여운을 안겼다. 류선재는 더 이상 죽지 않았고 임술은 그런 류선재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고군분투하지 않게 되며 마침내 서로를 구원한 두 사람의 서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변우석은 이번 작품을 통해 그간 본격 없는 새로운 변우석을 보여줬다. 19살의 패기 넘치는 학생 선재와 20살의 풋풋한 대학생 선재, 그리고 톱스타 34살의 선재까지 10대와 30대를 오가는 캐릭터를 각기 다른 청춘의 얼굴로 그려냈다. '첫사랑 아이론' 타이틀은 물론 '변우석=류선재'라는 공식을 남겼다.

연기적인 성장도 엿보였다. 초반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캐릭터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하는가 하면, 그 나이에 걸맞은 현실적인 연기로 극의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무엇보다 오직 임술만을 바라보는 15년 순애보에 첫사랑을 연상케 하는 비주얼, 다정한 눈빛과 중저음의 목소리가 더해지며 첫 타이틀을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는 "사실 이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한순간에 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서 더 실감이 안나는 것 같다. 1년 여의 기간 동안 선재로 살았는데, 아직도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게는 꿈같은 작품이었고, 가장 뜻깊은 작품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도 꼭 그랬으면 좋겠다. 저에게 와준 선재에게 너무 고맙고, 앞으로 저 변우석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라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뉴스스

이달소 이브, 압박감 떨쳐내고 솔로 가수로... '루프'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이브(Yves)가 솔로 아티스트로 재도약한다. (사진)

이브는 29일 오후 6시 첫 솔로 EP '루프(LOOP)'를 발매한다.

이 앨범은 일정한 시스템에 자신을 맞춰온 이브가 미리 정해진 규칙의 고리(Loop)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탐구한 결과물을 녹인 것이다.

동명의 타이틀곡 '루프 (feat. Lil Cherry)'는 챗봇처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리드미컬한 얼터너티브 비트에 담은 노래다.

소속사 파익스퍼밀(PAIX PER MIL)의 수장 밀릭(MILLIC)이 곡 작업에 참여했다. 여기에 유니크한 플로우가 매력적인 래퍼 릴 체리가 피처링으로 힘을 보탤다.

뮤직비디오에는 솔로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이브의 모습이 담겼다. 내면의 압박감을 떨쳐내고 솔로 아티스트로 당당히 선 이브의 결



연한 다짐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이상적인 버전의 '나'를 만난 감정을 메카니컬한 알앤비 리듬에 녹인 '디오라마(DIORAMA)', '미처 잊지 못한 전 연인을 만나다면?'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한 미묘한 감정을 노래한 '애프터글로우(Afterglow)', 어항 속 금붕어처럼 언제나 자신을 바라봐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고백의 팬송 '금붕어(Goldfish)' 등 총 4곡이 담겼다. 뉴스스